

이재명 "남북 스스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주도적 역할해야"



지난 15일 오후 판교 글로벌R&D센터에서 열린 경기 국제 평화센터 출범 기념 제 1회 국제 평화토론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출처 = 경기도>
[경인방송 = 홍성민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남북 스스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지난 15일 판교테크노밸리 R&D센터에서 열린 '경기국제평화센터 출범 기념 제1회 국제평화토론회'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한반도 평화는 한반도 민중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이자 세계적 관심사"라며 "한반도가 세계평화의 모범이 되는 길은 당사자인 우리가 얼마나 주도적으로 노력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라산전망대 내 평화부지사 집무실 설치가 유엔사의 반대로 무산된 것과 관련해서는 "경기도 땅에 공식 업무공간을 만드는 것조차 유엔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적절했는지도 문제거니와 이것이 정당한 일인지 깊은 고민이 필요 하다"고 전했습니다.

이 지사는 "경기국제평화센터를 중심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수행해 남북간 합의의 실질적 이행에 큰 역할을 해 가자"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 지사와 이재강 평화부지사, 연구홍 한신대학교 총장 등 국내외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홍성민 hsm@ifm.kr

국내외 전문가 'DMZ 평화적 활용·유엔사 관할권 문제' 머리 맞대

제1회 국제평화토론회 개최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활용과 유엔사 관할권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제1회 국제 평화토론회'가 15일 판교 테크노밸리 글로벌R&D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국제평화센터' 출범을 기념해 경기도와 한신대학교가 공동으로 주최로 열린 가운데 이해명 한신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시우 작가가 '유엔사 지위에 관한 현황과 쟁점', 이정희 한국외대 명예교수가 'DMZ의 평화적 활용과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진행한 뒤 토론을 진행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토론회는 이재강 평화부지사, 이해영 한신대 교수, 이성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김동석 마주현인 유엔자문대 대표, 천시몬 코라안폴 리서치연구소 책임연구원, 김영운 김포군단체협의회 대표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장애와 과제, 유엔사 현황 및 쟁점, 평화부지사

'경기국제평화센터' 출범 기념 열려

지방정부 향후 역할·과제 등 논의
이재명 지사 "주도적 역할 고민할 때"

집무실 등 유엔사의 통행신청 불허 사례, 지방정부의 향후 역할 및 과제 등을 두루 논의했다.

이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한반도 통일엔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자, 세계에서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이다. 동족상잔의 아픔이기도 하다"면서 "경기도가 어떻게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인지, 공식적인 업무 공간도 유엔사 승인을 받아야 하는 현재의 현실 등 문제를 해결하고 깊은 고민이 필요할 때이다. 평화·번영의 길을 함께 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노주희 경기국제평화센터장은 "경기도가 평화부지사 집무실을 도라산 전망대에 설치하려 했으나 유엔사의 권한 남용으로 장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며 "평화정력에 대한 지방정



15일 오후 판교 글로벌R&D센터에서 열린 경기 국제 평화센터 출범 기념 제1회 국제평화토론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강 평화부지사, 연구용 한신대학교 총장 등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부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만큼, 이번 토론회로 발전적인 제안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무관중으로 진행됐으며, 오후 3시부터 소셜방송 라이브(Live) 경기(Live)88.801.com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 됐다.
한편 '경기국제평화센터'는 경기도의 국제평

화정책을 수립하고 한반도 평화 기반 확산 및 경기도 차원의 등극에 평화협력 다자 플랫폼 구축을 위한 사업들을 전담하는 부서로 지난 10월 출범했다. /계건 기자

경기일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5일 오전 도청 상황실에서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와 한미 관계 및 경기도와 미국 간 협력 증진에 대해 화상 면담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미국 협력증진 방안 모색

李 지사·해리스 美대사 화상면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해리 해리스(Harry B. Harris Jr.) 주한미국대사와 경기도·미국 간 협력증진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가 지난 15일 오전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와 화상 면담을 갖고, 한미 관계발전과 함께 경기도와 미국 간 협력증진에 대해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이 지사는 해리스 대사에게 "앞으로 한미 관계가 상호 협조를 바탕으로 서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확대 발전되길 바란다"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과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부통령 취임에 관심이 크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직접 만나지 못하고 화상으로 대화하게 된 데 아쉬움을 표하면서 다음 주 이임하는 해리스 대사에게 앞으로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역할을 당부했다.

이에 해리스 대사는 영화 '기생충'과 BTS 등을 언급하며 "한국은 경제와 문화 다양한 부문에서 세계적인 모범국가"라며 "한국에서 미국을 대표해 일하면서 한국인들과 근무할 수 있던 것이 행운이었다. 앞으로도 양국 간 인적관계가 계속해서 한미관계를 좋은 상태로 지켜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현호기자